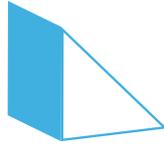


수



능



특



강



작자 미상, 「향산별곡」

- 갈래 : 가사
- 성격 : 비판적, 교훈적
- 주제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EBS

해제

이 작품은 「거창가」와 더불어 19세기를 대표하는 현실 비판 가사이다. 시골 양반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부패한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백성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며 조정 대신들의 당쟁과 과거제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서술하여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부패한 관리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성도 드러나고 있다.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구성

- ▶ 서사 : 하나님, 왕, 관리 등을 향한 발언
- ▶ 본사 :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걱정과 관리들을 향한 훈계, 과거 제도에 대한 비판
- ▶ 결사 : 가사를 보고 옳고 그름을 가리라는 당부



작자 미상, 「향산별곡」

문무 양반 목민(牧民) 중의 학민(虐民)*하는 원님네들
↳ 임금이나 관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들어 보소
↳ 관리들을 설득하려고 함

성(城)안에서 들을 제는 총명인자(聰明仁慈)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 저리 다르시고

↳ 관리들이 부임 전과 후가 다름을 비판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전과 함께인가
술에 식았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 열거법, 관리들의 부패 비판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 대구법, 부임 후 달라진 관리들의 모습 비판

내 모를가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내
착한 본성 잃은 속에 자기 욕심 길러 내어
사단지목(四端之目)*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선사양전(善事兩銖)* 그만하고 자목백성(字牧百姓)*하여 보소

- * 학민 : 백성을 가혹하게 다름.
- * 사단지목 :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룸.
- * 선사양전 : 이조 전량과 호조 전량을 잘 섬김.
- * 자목백성 :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 다스림을 이르던 말.



작품의 특징

- ‘학민하는 원님네들’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 관리들이 부임한 뒤에 자신의 욕심을 챙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한다고 생각함
- 열거법과 대구법을 사용하여 부임 전과 후가 달라진 관리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냄
- 관리들에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 탐학을 그만둘 것을 촉구



허난설헌, 「규원가」

- 갈래 : 규방가사
- 성격 : 자조적, 비판적, 의지적
- 제재 : 인고(忍苦)의 삶을 살았던 부녀자의 심정
- 주제 : 봉건 제도하에서의 부녀자의 한(恨)
- 구성 :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러운 회포 ♦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 ♦ 젊은 시절 회상 ♦ 늙고 외로운 신세 자탄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 남편의 외도와 무소식 ♦ 사계절을 지내면서 느끼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닦은 심정
전	♦ 외로움을 거문고로 달랠
결	♦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임을 기다림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규방 가사의 하나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여,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서글퍼하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는 것으로 화제를 이어 가고 있다. 고사나 관용구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스러운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주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구성

- ▶ 1~15행 : 젊었던 시절을 돌아보며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가 된 지금의 상황을 한탄함.
- ▶ 6~28행 :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는 심정을 노래함.
- ▶ 29~37행 : 마음을 달래고자 노래를 해 보지만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음.
- ▶ 38~50행 : 돌아오지 않는 임의 소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함.



허난설헌, 「규원가」

옛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젊은 시절 즐겁게 지낸 벌써, 이미 말해봐야 헛되다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 → 늙음을 한탄함

화자의 현재 처지

부생모육(父生母育) 몹시 고생하여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하더니

높은 벼슬아치의 좋은 아내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 전생에 지은 죄의 대가요, 부부의 인연으로. 불교의 윤회설이 바탕으로 깔려 있으며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거리에서 이슬난 호랑난 풍류객 경계 망동하는 사람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이서 → 남편에 대한 비난의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 남편이 군자(君子)가 아니라 술과 향락에 빠져있음. 결혼 초의 생활을 살얼음을 디디는 심정에 비유했다.

정성스런 마음을 쓰기 당시 화자의 마음 상태. 비유적 표현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울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열다섯 살 →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면목가증'과 대조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세월 빨리 지나가고 실꾸리를 넣는 나무뿔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의미한다. 직유법

베들의 베를 사이에

설빙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구나

고운 머리카락과 젊고 아름다운 얼굴 → 모습이 미움. 알미움 '천연여질'과 대조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꺾소냐 → 설의법.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랴 → 설의법

부끄러워 여김

가생집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이서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랴 → 술집에 출입하는 남편에 대한 불안과 괴로움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든

→ 말려무나. 말았으면 좋겠다.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 외로운 처지로 인한 괴로움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 여자가 거처하는 방, 또는 그 방의 앞 뜰 → 세월이 흘러갔음을 나타내는 표현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 섞여 내리고, 뿌려 치고

→ 자국눈.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조금 내린 눈, 객관적 상관물

여름날 길고 길 제 꽃은비는 무스 일고

→ 객관적 상관물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자신의 외로운 처지 때문에 즐겁지가 않다.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자의 서글픈 정서가 대조를 이루는 부분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 귀뚜라미(실술, 화자의 슬픔을 심화)가 침상에서 울 때, 감정이입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헐**만 만타

→ 헤아림만. 생각만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 풀어 헤아리니. 끊임리 따져 생각해 보니

청등(靑燈)을 둘러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 한나라 때 사마 상여가 탔다는 거문고. 이 거문고로 '봉구황곡(鳳求凰曲)'을 타서 탁문군(卓文君)을 꾀었다고 함, 객관적 상관물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 근심을 따라 시름을 얹어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씻**도는 듯 → 섞여 나는 듯

→ 소상강의 밤비에. 소상강 밤비가 대나무 숲에 내리는 경치가 소상 팔경(瀟湘八景)의 하나로서 처량하고 구슬픈 정경을 말함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 별난 학이 울고 있는 듯

→ 화표주(華表柱) 위에서 천 년 만에. 화표주(華表柱)는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望柱石). 옛날 요동에 정명위(丁令威)라는 이가 영허산(靈虛山)에 가서 도를 배운 뒤 학이 되어 천 년 만에 돌아와 화표주에 앉았다 함.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허난설헌, 「규원가」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 연꽃을 수 놓은 휘장

→ 등불을 둘러 켜 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은 외로운 심정을 달래 보고자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거문고로 연주한 곡은 슬픈 곡조이며, 또한 화자는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들어 줄 이(남편)가 없다는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아픔을 새삼 확인한다.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굽이굽이 끊쳤세라

↳ 구곡 간장을 이루어. 마음이 괴로움으로 구비구비 뒤틀리어서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 꿈에서라도 입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애라는 심정이 시도마져 좌절되어 막막함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이는 꿈에 입을 잠깐 만났으나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다가 닭 우는 소리에 잠이 깨 버렸다는 송강 정철의 속미인곡의 본사(本詞) 부분과 유사.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 입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과 대조되는 대상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 만나는 기약을 어기지 아니하는데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빚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관용적 표현

초로(草露)는 맺혀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설다

↳ 감정이입

세상의 설운 사람 수 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 자신의 처지가 불운한 운수에서 비뚤됨을 한탄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까닭, 탓

* 삼생 : 전생(前生), 현생(現生), 내생(來生)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월하 :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이. 중국 당나라의 위고(韋固)가 달밤에 어떤 노인을 만나 장래의 아내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데서 유래함.

* 다시 : 시기(猜忌)가 많음.

* 면목가증 : 얼굴 생김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 백마 급편 : 흰말과 급 채적. 사내의 호사스러운 기마 풍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 약수 :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작품의 특징

- 자연물(매화)을 묘사하고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여(겨울밤, 여름날)외로움의 시간이 오래 지속됨을 나타냄
- 실술, 서러운 새소리를 통한 감정이입이 드러남
- 자최눈, 굿은비, 녹기금 등의 객관적 상관물 동원
- 설의법, 의인법등 다양한 비유법 사용
- 옛 이야기속 주인공과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여 비극성 강조
- 여성인 작자 자신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恨을 표출
- 규방 가사의 선구자적인 작품. 현전하는 최초의 여류 가사
-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에 여성이 작자층으로 등장하면서 규방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



한산거사, 「한양가」

- 갈래 : 가사, 풍물가사, 기행가사
- 성격 : 사실적, 기행적
- 제재 : 한양의 풍물
- 주제 : 한양의 풍물에 대한 소개와 감탄

#EBS

해제

이 작품은 19세기 한산거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장편의 풍물 가사이다. 조선의 왕도인 한양의 지리, 풍속, 문물 등을 사실적으로 소개한 작품으로, 당시 한양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이 작품에 소개된 시전의 모습, 당시 신분에 따라 즐기던 놀이 문화 등에 대한 소개는 다른 문헌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어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제

한양의 풍물에 대한 소개와 감탄

구성

이 작품은 소개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제시문은 [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 [가] : 한양의 지리적 위치
- ▶ [나] : 궁궐의 모습
- ▶ [다] : 여러 관청들
- ▶ [라] : 시전의 풍경
- ▶ [마] : 승전 놀음
- ▶ [바] : 능행 모습
- ▶ [사] : 과거장, 급제자의 유가 풍경
- ▶ [아] : 한양의 찬양

작품의 특징

- 19세기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의 풍물을 소개하고 묘사한 풍물 기행가사
- 사실적인 풍물의 소개와 열거의 방법을 통해 사물을 나열하고 느낌을 서술하는 기행 수필적 성격
- 작품이 창작된 조선 후기의 시대상과 현실이 반영되어 여러 상점에 벌여 놓은 갖가지 상품들과 기생이 동원되는 놀이마당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한양의 도시적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 작자의 현실인식은 보수적인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변화하는 시대적 추이에 따른 새로운 전망이나 세계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지는 않는 한계를 지닌다.



한산거사, 「한양가」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 조선의 문물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廩)* 장할시고 → 외국의 물건들이 상점에 차있음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 남대문시장

민어 석어 석수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 낙지 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중략) 생선들을 열거 - 물화의 다채로움과 시장의 생동감 드러냄

도자전(刀子廩)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
↳ 장도나 패물등을 파는 가게

용잠(龍簪) 봉잠(鳳簪) 서복잠(瑞福簪)과 간화잠(間花簪) 창포잠(菖蒲簪)과
앞뒤 비녀 민족절*과 개고리 얹힌 쪽비녀며 → 부녀자들의 장신구들을 열거

비녀 : 용잠, 봉잠, 서복잠, 간화잠, 창포잠, 만죽절
가락지 : 은가락지, 옥가락지, 순금지환
노리개 : 대삼작, 소삼작, 옥나비, 금벌, 산호가지, 밀화불수
장도 : 은장도, 대모장도
- 재물의 풍부함과 예술적 다채로움 강조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蜜花指環)*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값 많은 순금지환
노리개 불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 노리개를 크기에 따라 분류함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지 밀화불수 → 호박(밀화)로 장식한 한 노리개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끈 술 끈 술 갖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 려함이 어느 정도인지 잴 수 없다(주관적)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 청계천에 있는 다리 ↳ 여러 주제가 담긴 그림을 판매하는 역동적 분위기

보기 좋은 병풍차(屏風次)*의 백자도 요지연과
곽분양* 행락도며 강남금릉 경지도며
한가한 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다
다락벽 계전사호 장지문 어약용문 → 잉어그림. 관직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있음
↳ 닭, 개, 사자, 호랑이 그림

해학반도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
↳ 불로장생 기원 ↳ 사군자 그림

횡축(橫軸)을 불작시면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성주(投花成珠) 하는 모양
↳ 김만중의 소설인 '구운몽'의 첫 장면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의 소재로 하여 그림

주나라 강태공이 궁팔십 노옹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끈은 낚시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문왕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 중국의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림

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 모양
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 네 명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의 그림.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빗댄

- * 백각전 : 조선 시대 정부에서 관리하던 상점들.
- * 민족절 : 아무 모양도 새기지 않은 대나무 비녀.
- * 밀화지환 : 보석의 일종인 호박으로 만든 가락지.
- * 병풍차 : 병풍을 꾸밀 그림이나 글씨.
- * 곽분양 : 당나라의 명장으로 높은 공을 세우고 많은 복을 누린 사람으로 유명함.
- * 소상팔경 : 중국 소수와 상수 일대의 여덟 군데 빼어난 경치.
- * 상산사호 : 중국 진나라 말기 상산에 숨어 살던 네 명의 은사(隱士).



작자 미상, 「수심가」

- 갈래 : 가사
- 성격 : 애상적
- 운율 : 4.4조가 4음보 가사체. 운문체
- 주제 :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

#EBS

해제

이 작품은 서도, 즉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수심가」는 수많은 이형(異形)이 존재한다. 그 사실을 살펴보면 이옥봉의 시 「몽혼(夢魂)」을 비롯한 여러 다른 기존의 시나 노래에 서 차용한 흔적들이 보이고, 한문 문투의 상투적인 표현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므로 한 개인의 창작이라기보다 평양 지방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창자(唱者)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형되고 증편이 거듭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1~2연 :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
- ▶ 3~6연 :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과 무상감
- ▶ 7연 : 친구에 대한 그리움
- ▶ 8~10연 :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세에 대한 한탄
- ▶ 11연 :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과 서러움
- ▶ 12연 : 밤에 느끼는 슬픔과 원망
- ▶ 13연 : 입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잊으려 놓고 싶은 마음



작품의 특징

-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의 경관을 묘사 한다.
- 동일한 의미의 반복에 의한 잉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자규’로 보여지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입에 대한 그리움과 입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
- 한문투의 혼합적사용과 기존의 시에서 차용 된 구절, 상투적 표현 등을 통해 오랜시간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작자 미상, 「수심가」

근래안부(近來安否)가 문여하(問如何)요 월도사창(月到紗窓)에 첩한다(妾恨多)*인데 → 이옥봉의 <몽혼>의 1,2구 인용

요즘 임의 안부를 묻습니다.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花容)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꽃같은 얼굴이 그리워, 정서: 상사의 정

약사몽혼(若使夢魂)으로 행유적(行有跡)이면* 문전석로(門前石路)가 반성사(半成砂)*로구나 → 이옥봉의 <몽혼>의 3,4구 인용

돌길에 모래가 됨. 과장법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花容)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강산불변재봉춘(江山不變再逢春)*이요 임은 일거(一去)에 무소식이로구나

돌아 오는 봄에 비해 임은 돌아오지 않음. 자연과 인간의 대조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정서: 인생무상

인생일장(人生一場)은 춘몽(春夢)이 되고 세상공명(世上功名) 꿈박이로구나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추야공산(秋夜空山)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가을 밤의 사암 없는 산.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냄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 할까요

일락서산(日落西山)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솟아 온다

동어반복의 일여적 표현. 일락=해떨어지고, 월출=달 솟아온다. 민요<논매기노래>등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嗟然)하여 나 어이 할까요

놀라서 어안이 벋벋한 상태

친구가 본관은 남이런만은 어이 그다지도 유정(有情)탄 말이오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며는 그리워 아 어찌잔 말이오

계변양류(溪邊楊柳)는 사사록(絲絲綠)이요 무릉도화(武陵桃花)는 점점홍(點點紅)이로구나

봄의 경치. 버들가지의 초록과 복숭아 꽃의 붉은색의 색채대비

생각 사사로 이미롭지 못하여 나 어이 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엮매이는 것 없이, 임의롭지. 자유롭지

난사(亂事)로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겹난사로구나

어려운 일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여 잘 살아 볼까요

청포(靑袍)로 일상만리선(一上萬里船)*하니 동정여천(洞庭如天)이 파시추(波始秋)*로구나

서도의 <관산음악>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 하여 어이 사드란 말이오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누나

젊어감에 대한 탄식. 자연과 인간의 대조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아 자귀야 우지를 마라 울 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소적새. 객관적 상관물

여관한등(旅館寒燈) 잠들은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오

여관의 차가운 등불 아래. 당나라 시인 고적<제야작>에서 인용

무심(無心)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나던 임 생각 저절로 나누나

아무런 감정이 없음

청춘홍안(靑春紅顏)을 애연(哀然)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 근심 걱정을 잊고 놓고 싶은 마음 상사의 정과 인생무상의 회한을 '마음대로 노잔다'를 통해 근심해소의 의지를 보임.

- * 월도사창에 첩한다 : 첩은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음.
- *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 만약 나의 꿈속의 혼이 자취 있다면.
- * 문전석로가 반성사 : 임의 집 앞 돌길에 닳아서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임.
- * 강산불변재봉춘 :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봄은 다시 옵니다.
- * 청포로 일상만리선 : 청포를 입고 만 리를 가는 배에 오름.
- * 동정여천이 파시추 : 동정호에 이르니 물빛이 하늘과 같이 물결이 가을을 알림.



작자 미상, 「영산가」

- 갈래 : 잡가
- 성격 : 유희적, 풍류적
- 제재 : 봄날의 산에서 느끼는 감상
- 주제 : 인생무상과 삶의 유희에 대한 권유

#EBS

해제

이 작품은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살아생전 마음껏 놀아볼 것을 권유하는 조선 시대 후기 십이 잡가의 하나이다. 후렴구 없이 인생무상과 삶의 유희를 노래하는 비교적 일관된 가사를 지닌 작품으로, 자연을 유희와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 사대부 가사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자어나 고사의 활용과 같은 당대 양반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시조를 인용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인생무상과 삶의 유희에 대한 권유

구성

- ▶ 1~11행 :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서 느끼는 흥취
- ▶ 12~24행 :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
- ▶ 25~34행 : 마음껏 인생을 즐길 것을 권유함.



작품의 특징

- 작품의 제목 <영산가>는 '산꼭대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해석.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봄날의 산 풍경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룸.
- 대상을 의인화 하여 친밀감을 드러냄
-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제시
-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풍경을 생동감있게 묘사
-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고사를 활용
-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함



작자 미상, 「영산가」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계절적 배경: 봄 노란 벌과 하얀나비가 날아다니네 - 색채의 대비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영산홍록 봉날의 산기운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春氣春興)을 조롱한다

봉날의 흥겨움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를 신어라 → 죽장: 대나무지팡이, 망혜: 짚신. 가벼운 옷차림을 의미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廬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명산.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하는 잡가의 특성 1

의시는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은하수와 같다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당나라 시인 김창서 <출원>에 나오는 구절 인용.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하는 잡가의 특성 2

나무를 쳐서 꾀꼬리가 날아가게 하는 것

꾀꼬리가 나뭇가지에 앉는 것

꾀꼬리 닳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황금 갑옷 떨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하는 잡가의 특성 3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 시조의 표현 패러디.

화류 장대(臺) 고운 여자

청산에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산 절로 수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꽃잎 위에 이슬은 아침해가 떠오르면 바로 사라짐. 허망하게 지나가는 삶.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끄적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

사구평대(沙丘塚臺) 저문 날에 여산청초(驪山靑草) 속절없다* →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하는 잡가의 특성 4. 중국의 고사 인용해 인생무상 강조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死後留名) 되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끄적 죽어지면 / 칠성포*로 짚끈 묶어 소방상* 땃들 위에 → 상여 위에 놓인 후에

두렷이 매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 꽃은비는 세우 쉬어 함박으로 퍼붓는데

여러 명이

꽃은비와 가느다란 비가 섞여

무주공산 터를 닦아 청송(靑松)으로 울을 삼고 / 두견새로 벼를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주인 없는 빈 산에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산은 요요 물은 광광 이것이 낙이로다 /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 하리

나뭇가지가 갈게 드리워져있음

노류장화(路柳墻花)*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 보세

* 영산홍록: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무성하여 산을 붉고 푸르게 덮음.

* 비류직하삼천척 / 의시는하낙구천: 삼천 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네. 이백(李白)의 「망여산폭포」의 한 구절.

* 사구평대 ~ 속절없다: '사구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곳,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곳으로, 인생무상을 의미함.

* 칠성포: 시신을 염습한 다음에 묶는 끈으로 사용하는 삼베.

* 소방상: 좁은 곳에 사용하는 작은 상여.

* 노류장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작자 미상, 「소춘향가」

- 갈래 : 12잡가
- 성격 : 애상적, 서정적, 과장적
- 제재 : 춘향과 몽룡의 만남과 이별
- 주제 : 만남과 이별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희비(喜悲)

#EBS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 중 당시 관객들이 선호했던 장면을 조합하여 노래로 만든 조선 시대 후기 십이잡가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춘향가」의 대목은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장면과 몽룡과 헤어진 후 춘향이 슬퍼하는 장면인데, 이 작품에서는 논리적 연관성 없이 이러한 장면을 축약, 변형, 확대하여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춘향가」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만남과 이별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희비(喜悲)

구성

- ▶ 1~11행: 몽룡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 주는 춘향의 모습
- ▶ 12~16행: 춘향에 대한 몽룡의 연정
- ▶ 17~19행: 이별한 몽룡에 대한 춘향의 그리움과 슬픔



작자 미상, 「소춘향가」

춘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죽림 보인다
 대 심어 울하고 솔 심어 정자라
 동편에 연당(蓮塘)이요 서편에 우물이라

↳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노방(路傍)에 시매오후과(時買五侯瓜)*요 문전(門前)에 학종선생류(學種先生柳)*라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추니 →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춤을 추는 모습. 감정이입과 의인법을 활용.
 저 건너 사립문 안에 삼살개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 치는 저 집이오니
 향훈에 정녕 돌아오소 → 몽룡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춘향의 말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웬 계집이건대 나를 종종 녹이느냐
 너는 웬 계집이건대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나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華時)*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긴긴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노 → 기다림의 시간은 더디가고, 만남의 시간이 빨리 흘러감. 대구적 표현과 대조되는 어휘를 사용.
 ↳ 춘향을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춘향과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몽룡의 말

일월무정(日月無情) 덧없도다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 대구법. 삶의 무상함을 강조
 ↳ 인형: 세월, 무정하게 흐르는 세월 ↳ 미인의 모습, 고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 허무하게 늙었구나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 과장법.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
 지척동방 천 리 인가 어이 그리 못 보는고
 ↳ 지척에 있는데도 천리처럼 멀다.

* 노방에 시매오후과 : 길가에서는 때에 맞게 오후들이 오이를 팔고 있음. 오후는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
 * 문전에 학종선생류 : 문 앞에는 오류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음. 오류 선생은 도연명의 호이며, 자기 집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다고 함.
 * 녹음방초승화시 :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아름다운 때. 여름철 화사한 때를 말함

작품의 특징

- 모두 72구의 짧은 작품으로 '춘향가(春香歌)'의 일부분을 초하였다는 뜻으로 '소춘향가(小春香歌)'라고 부름.
- 내용의 전반은 춘향이 이도령에게 자기 집을 알려 주는 대목이고, 후반은 이에 대한 남성의 연정을 노래한 것이다.
- 판소리 춘향가는 춘향전 전편을 다 부르지만 소춘향가는 그 한 토막을 경기창법에 의해서 부른다. 춘향의 이야기를 가져온 소리는 [소춘향가]외에도 [집장가] [십장가] [형장가] 등이다.
-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의문형 종결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한문 투의 말투와 일상적인 말투가 혼재되어 있다.
-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서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규보, 「설중방우인불우」

- 갈래 : 5언 절구의 한시
- 성격 : 감상적
- 제재 : 하얗게 쌓인 눈
- 주제 : 친구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EBS

해제

이 작품은 고려의 유명한 문인 이규보가 지은 한시로, 오언 절구에 해당한다. 어느 겨울 친구의 집을 방문한 화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종이보다 하얀 눈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 방문 소식을 알리려 한다. 바람이 불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눈 위에 이름을 남김으로써 친구를 만나지 못한 절절한 아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친구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구성

- ▶ 기 : 하얗게 쌓인 눈을 보고 종이를 떠올림.
- ▶ 승 : 채찍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눈 위에 씌.
- ▶ 전 : 바람에게 불지 말 것(이름을 지우지 말 것)을 부탁함.
- ▶ 결 : 주인(친구)이 자신이 왔다 갔음을 알기를 바람.



이규보, 「설중방우인불우」

눈 속에 빛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갈래
↳ 시각적 상상, 비교법

雪色白於紙 (설색백어지)
↳ 종이보다 희다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 눈위에 이름을 적어 자신이 다녀갔음을 알림.

舉鞭書姓字 (거편서성자)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 의인화, 바람을 청자로 삼아 요청함.

莫教風掃地 (막교풍소지)
↳ ~로 하여금 ~하지 않도록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램.

好待主人至 (호대주인지)



작품의 특징

- '눈의 빛'과 '종이'의 흰 정도를 비교하면서 눈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된 이유를 밝힘.
- '바람'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음.
- ~마라, ~렴 의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



이옥봉, 「자술」

- 갈래 : 7언 절구의 한시
- 성격 : 애상적, 과장적
- 제재 : 임을 기다리는 마음
- 주제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시인 이옥봉이 지은 한시로, 칠언 절구에 해당한다. ‘첩(妾)’으로 드러나는 여성 화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활용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임의 안부를 솔직하게 물은 후,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과장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

구성

- ▶ 기 : 근래 임의 안부를 물어봄.
- ▶ 승 : 달 뜨는 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함.
- ▶ 전 : 꿈속에서도 임을 찾아다니는 간절한 마음을 밝힘.
- ▶ 결 : 꿈속의 문 앞 돌길이 모래가 될 정도로 임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밝힘.



이옥봉, 「자술」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近來安否問如何 (근래안부문여하)
↳ 의문형 어미

사참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月到紗窓妾恨多 (월도사창첩한다)
↳ 한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 일에 대한 그리움을 달빛에 감정이입.
↳ 비단으로 만든 창, 여자가 기거하는방을 의미 ↳ 화자의 정서

꿈속 닢 만약에 자취 있다면 若使夢魂行有跡 (약사몽혼행유적)
↳ '닢'의 움직임에도 자국이 남는다면
↳ 화자의 목구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역할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門前石路已成沙 (문전석로반성사)
↳ 일이 보고 싶어서 돌길이 모래가 될 정도로 임 계신 곳을 끊임없이 왕래할 것이라는 의미로, 과장법을 이용하여 일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

작품의 특징

- 가정법과 과장된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은근한 물음을 통하여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냄.



작자 미상, 「처용가」

- 갈래 : 고려가요. 속악가사
- 성격 : 무가(巫歌)
- 제재 : 역신을 몰아내는 처용의 위용과 기상
- 주제 : 가정을 침범한 역신을 구축함. 벽사진경

#EBS

해제

이 작품은 향가 「처용가」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려 가요로 축사(逐邪)의 내용을 지닌 일종의 무가이다. 향가 「처용가」의 내용을 본문 중에 담고 있으며,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본문에는 처용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부분, 한밤중에 돌아온 처용이 열병신을 마주하는 모습, 처용아비를 두려워하는 열병대신의 모습 등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가정을 침범한 역신을 구축함. 벽사진경

구성

- ▶ 1~6행 : 처용아비에 대한 예찬
- ▶ 7~9행 : 집으로 돌아가려는 처용
- ▶ 10~14행 : 열병신의 침범을 확인한 처용
- ▶ 15~18행 : 열병신을 잡아 달라는 요청
- ▶ 19~21행 : 처용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열병대신



작자 미상, 「처용가」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 처용 또는 처용의 모습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 처용을 만들어 낸 사람의 신이함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 반복법. 신이함을 강조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십이 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 모여 치켜세우는, 찬양하는
 아, 처용아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있는 처용
버찌야, 오얏야, 녹리야 → 처용과 밤늦게까지 놀던 곳의 여인들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매어라 → 집에 가기 위해 신발을 묶는 행동
 안 매어 있으면 나올 것이다, 나쁜 딸
동경 밝은 달과 밤늦도록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 향가 <처용가>와 똑같은 상황이 제시됨. '동경 밝은 달'을 통해 처용의 상황을 알 수 있음.
아,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가 → 처용의 대사 제시. 역신이 처용에게 한 약속을 환기.
 이런 때 처용아버가 보시면
 ↳ 역신이 고려가요의 <처용가>에서는 '열병신'으로 표현된다.
열병신이야 횃거리*로다
 ↳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대상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용아버이여 → 처용이시며,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용의 신이한 능력)
칠보를 주겠습니까 처용아버이여* → 처용이시며, 칠보(고귀하고 비싼 것)를 주겠습니까?
천금 칠보도 그만두오
열병신을 날 잡아 주소서 → 비교를 통해 열병신을 부각함
 ↳ 천금, 칠보 보다 열병신을 잡아주기를 바람.
산이나 들이나 천 리 외에 → 멀고 먼 곳으로
처용아비를 피하여 가고저 → 열병신의 말. 처용아비를 피해 도망가고 싶음
아, 열병대신의 발원이시로다 → 열탄전 어조('아'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표현)

* 횃거리 : 횃감. 회를 만드는 데에 쓰는 고기나 생선.
 *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용아버이여 / 칠보를 주겠습니까 처용아버이여 : 본문과 달리 '천금을 드릴까요 처용아바 / 칠보를 드릴까요 처용아버이'로 해석하여, 몫사 람이 처용을 달래는 말로 보는 경우도 있음.

작품의 특징

- 고려 속요 처용가는 향가 처용가의 앞뒤에 많은 사설을 더하여 극시의 형태로 개작한 것
- 향가 처용가와는 달리 처용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역신에 대한 분노가 직접적으로 드러남
- 작품의 서두는 처용의 존재를 상당히 위엄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말미에서는 열병신이 '처용 아버를 피해가고 싶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처용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처용, 「처용가」

- 갈래 : 8구체 향가
- 성격 : 축사(逐邪:귀신이나 요사스러운 기운을 내쫓는 것)의 노래
- 주제 : 처용의 체념과 관용, 벽사진경(벽사: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진경:좋은 일을 맞이함)과 축사(逐邪:나쁜 귀신을 쫓아냄)

#EBS

해제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8구체 향가로, 신라 헌강왕 때 지어진 것이다. 배경 설화에 따르면 역신(천연두를 앓게 하는 귀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본 처용은 이 노래(「처용가」)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갔다고 한다. 이 모습에 감복한 역신이 처용 앞에 무릎을 꿇은 후, 처용은 역신을 구축(驅逐)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주제

처용의 체념과 관용, 벽사진경

구성

- ▶ 1~2행: 한밤까지 놀다 집에 돌아옴.
- ▶ 3~4행: 역신이 아내를 범한 것을 알게 됨.
- ▶ 5~6행: 역신의 침입을 확인하고 체념함.
- ▶ 7~8행: 처용의 관용



처용, 「처용가」

동경 밝은 달 에

↳ 동경 : 서울. 여기서는 경주. 공간적, 시간적 배경 드러냄.

밤들이 노니다가

↳ 밤 들게. 밤이 늦도록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 역신(復神)이 아내를 범하고 있음을 노래한 것

↳ 다리 네 개 는 아내와 역신을 의미(세유법: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둘은 내 것이었고

↳ 내 아내의 다리

둘은 누구의 것인고.

↳ 역신의 다리

본디 내 것이지만

↳ 원래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 달관적 태도 혹은 체념과 관용. 영탄적 어조.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고 외치는 듯한 어조)



작품의 특징

- 대체로 축사(逐邪:나쁜 귀신을 쫓아냄)나 벽사진경(벽사: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進慶:좋은 일을 맞이함)의 무가(巫歌)로 본다.
- 아내를 범한 역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처용의 모습을 형상화
- 대유법과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표현